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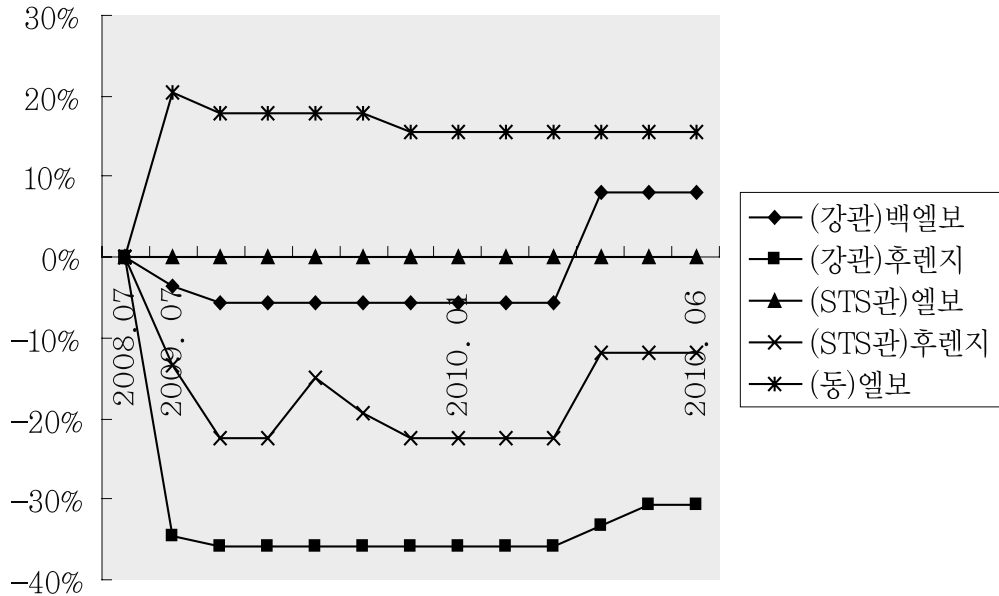
# 우리도 16강으로...

김현회 / 원칸네트웍스 사업총괄본부장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우리 월드컵 축구 대표가 온 국민들에게 잠시나마 청량제를 선물했다. 하지만 월드컵 첫 출전 후 무려 56년 만에 해외 원정 16강 진출이었다. 세상에 쉬운 일은 결코 없는 법이다. 우리 업계도 사상 초유의 어려움을 잘 견디고 있으니 하반기에는 여기 저기서 승전보가 날아오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으니..... 설비건설 가족 여러분 파이팅!

(2010년 6월~7월 자재 동향)


|              |  |
|--------------|--|
| 자재 전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0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원자재 가격의 등락이 심함</li> <li>- 이런 혼란 가운데 국내 철강업계는 내수 시장의 수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제품에 반영하기 위해 단가 인상을 시도하고 있어 내수 시장의 혼란이 증첩되고 있음</li> </ul>                         |
| 강관 및 관련 제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강사의 단가 인상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철강제품이 톤 당 100,000원선으로 인상되리라는 예측까지 있음</li> <li>- 원자재인 철강의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면 제강사의 단가 인상이 7월 중에 이루어질 수 있음</li> </ul>                                       |
| 동관 및 관련 제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월초 LME(價)가 하락을 보인 가운데 국제 원자재시장의 전기동이 톤당 6,100 달러와 6,800 달러 사이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어 추가 하락의 여지가 있음</li> </ul>  |
| STS관 및 관련 제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 시장에서 STS관은 2010년 초 최고 28,000 달러선을 위협하였으나 6월 들어 18,000 달러까지 하락하였고 국내 STS관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음</li> <li>- 국제 원자재 시장에서 가격 하락이 있으나 환율이 다소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추가 가격 하락의 여지도 있음</li> </ul> |
| 주철관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 선철 시장의 가격 인상이 3월부터 있었으나 국내 메이저 주철관 생산업체들의 단가 인상은 없었음</li> <li>- 이에 더 이상의 출혈은 막겠다는 제조사들의 인식이 팽배하여 단기적으로 7월내 단가 인상 가능성이 있음</li> </ul>  |
| 구매 전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반적인 건설경기 침체속에 자재가격의 예측이 쉽지 않고 단기적인 가격 상승과 하락이 심해질 것으로 예측됨</li> <li>- 현장 상황과 단가 변동 추이를 지켜보며 중장기보다는 단기 현금 할인 구매 등의 전략이 필요할 때라 생각됨</li> </ul>                                     |



(2008~2010년 주요 관부속 가격 동향, 자료제공:원켄네트웍스, 2010년 7월)

지난호에서도 이야기하였지만 장기적인 자재 가격 예측은 현재 시점에서 어렵기도 하고 자재 수요가 많지 않아 정확하지도 않다. 다만 과거 경제 상황과 원자재 가격에 따른 설비 자재 가격 움직임을 미리 익혀 두는 것은 향후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즉각 대응이 가능하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래프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올 6월까지의 주요 관부속 가격 추이를 보여 준다. 2008년 거품이 사라지고 금융위기가 불거지며 2009년에는 동제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관 부속이 내림세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 2/4분기 들어서는 동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부속들은 오름세로 돌아섰다. 금융위기 탈출에 대한 기대감과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저가로 일관했다는 반발 심리가 아닐까 한다. 2007년 7월 가격을 거품 가격으로 보고 2009년 평균 가격을 저평가 가격으로 본다면 앞으로 어느 정도

경기가 좋아질 경우 설비 자재가 상승할 가능성은 다소 남아 있다고 하겠다. 

### 김현회(金炫會) 총괄본부장 프로필



- 現 원켄네트웍스(구 설비넷) 사업총괄 본부장
-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졸(91년)
- 삼성그룹 공채 입사(91년, 삼성화재 발령)
- 홍보실 근무(사보, 사장단 연설문 작성, 사내방송PD, 언론·인터넷 담당 등)
- 삼성그룹디자인연구원 멀티미디어학과 및 UCLA Extention(뉴미디어, 스토리텔링 등) 과정 수료
- 시장개발 및 영업기획 업무 담당(PDA영업, 리플렛 기획 등)
- 인터넷사업팀 근무(삼성화재 전국애니카서비스망 구축, 전자 인터넷사업 기획 운영 등)